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음 10월 11일) 제193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부영주택, 검찰 송치

전주시, 전국 연대 통해 강력 대응

“향후 사건 처리결과 전국 지자체에 알려 임대료 인상 저지할 것”

전주시가 서민 아파트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김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공동연대해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주)부영주택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수사 중”이라며 “향후 사건 처리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널리 알려 공동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를 고발하고 수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주)부영의 임대료 증액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주)부영 측에 2.0% 이내로 인하 조정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해 결국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신속한 하자보수와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제공을 위해 수 십 차례 (주)부영 주택과 면담을 실시하고 임차인, 시민단체, 시의회, 전국 지자체 및 정치권 등과 연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무원이 아파트 현장에 상주해 하자보수에 대해 대응했고, 임차인대표, 시민단체, 전주시의회와 함께 4차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임대료 인상률의 인하를 요구했다. 박선이 구청장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대료 인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을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2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는 또 최근 신청된 임대조건 변경 신고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조치하고 향후 3차분(2017년10월21일~2018년10월20일)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부영은 3차분 임대료를 3.8%로 인상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의 과잉공급과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임대료 인상요인이 적고,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면 2.0% 내외가 적정하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시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차원에서 관계부처, 국회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주)부영은 매년 허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민근 기자

수능 만점자 전복서 2명

모두 재학생 아닌 졸업생 각각 인문계열·자연계열
도교육청, 개인정보 미공개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전북지역에서는 2명이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가채점한 결과 도내에서는 총 2명의 수험생이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재수생)으로 전해졌다. 만점자 2명 모두 남학생이며 1명은 인문계열, 1명은 자연계열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점자들의 실명은 도 교육청이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수능 만점자는 전국적으로 9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다. 다음달 12일 수능 성적이 공식 통지되면 정확한 만점자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해은 기자

매일 INDEX
5면 - 고교 학점제 2022년 도입
6면 - 농장 계란, 마트 직행 못한다

“지난 정부, 지진대비 전혀 안했다”

최인정 도의원, “내진설계 적용된 학교 중 피해 정도 파악해 올바른 공법 적용 조사해야”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 의원은 27일 “도내 각급학교는 많게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로 이뤄져 있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지난 정부에서 지진대비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관선시절 국가(교육부)에서 교육감을 임명하고 그 당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신설했다면 학교시설 또한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라면서 “열악한 도내 교육재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지진피해, 내진 예산 등을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8년 3월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 제3조항과 3항2호를 살펴보면 “지진재해 및 화재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국가의 책무다. 그는 “포항과 경주 지진으로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었다. 전북도 지진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구조적 계산에 의지한 내진 공법설정이 아니라 포항과 경주의 내진설계가 이뤄진 학교 중 피해의 정도를 파악해 올바른 공법 적용을 조사해 그 육성을 가려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고창 오리농장서 발생 AI 작년과는 전혀 다른 ‘신종’

“H5N6형과 H3N6형 재조합된 새로운 유형 H5N6 지난해 국내서 유행한 H5N6형과 유전자 특성 달라”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유행했던 AI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인 것으로 판명됐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27일 “이번 고병원성 AI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2016년말 유럽에서 유행한 H5N6 바이러스와 유럽 야생조류 저병원성 바이러스 H3N6형이 재조합된 새로운 유형의 H5N6 AI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유형의 AI가 H, N 타입으로 구분되는 144개 종류에서 벗어나는 신종이거나, 변종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유행한 H5N6형 AI 유전자와는 유전자 특성이 매우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는 이들 바이러스간 재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H5N6형 AI가 올해 10월 이후 겨울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해당 AI는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감염된 철새 바이러스가 야생조류, 사람, 차량 등을 통해 농장 내로 유입된 것으로 잠정 추정된다”며 “농장 인근에 철새 도래지인 통림 저수지가 있고 최근 가창 오리 등 철새 이동이 확인됐으며, 축사 지붕에 야생조류의 분변이 다수 발견돼 AI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또 발생원인과 유입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해 농장 및 통림 저수지 인근(고부천, 사산 저수지 등)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및 분변 852점을 추가로 채취해 바이러스 확인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가진 병원성 특징 등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삼민 기자

국립승마센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